

대행 스님

우리가 그대로 법이고 그대로 묘법이고 그대로 활공법이다!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자리를 해 주시는 여러분을 볼 때에 정말 100% 벗어나서 세세생생에 삶의 보람을 가지고 자유인으로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모두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추우나 더우나를 떠나서 이렇게 물주머니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음들을 가지셨으니 얼마나 갸륵하십니까?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하여튼 그 어항이라는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공부를 생활 속에서 내가 함이 없이 할 수 있게 여러분께서 잘 알아서 행하시도록 노력하십시오. 아무리 부처가 된다, 벗어난다 할지라도, 안다 하더라도 돌다리를 두드려 가면서, 아는 것도 물어 가면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단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질문하십시오. 알아도 질문이고 몰라도 질문이니까 여러분이 한자리에서 같이 공부하시기 위해서 몰라도 해야 하고 알아도 해야 합니다,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단식에 대해서 얘기하기 이전에 진리라는 것이, 불상을 만 불(萬佛)을 모셔 놔도 하나가 빠지게 되는 것이 아마 상례일 것 같습니다. 왜 그 하나가 빠지는지, 또 원효 대사가 설총이더러 쓰레질을 하라고 그랬을 때에 말갛게 쓰레질을 해 놓으니깐 한 무더기 집어서 훌훌 끼얹어 놓은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 까닭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잠시 사이) 죄들, 죄들 부처가 다 되셨어. 부처가 다 되셔서 손 들 것도 없고 안 들 것도 없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하하.

광주에 있는 운주사에 불탑이, 석탑이 천불(千佛)이 모셔져 있고 뭐, 어떻다고 그러는데 이 공부한 사람들의 의견은, 하나가 있어도 천 불이고 하나가 있어도 만 불이고, 삼십 개가 있어도 삼천 불이 될 수 있고 삼만 불이 될 수 있고, 삼 불이 될 수 있고 삼십 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와불(臥佛)도 있고, 모두 이렇게 앉아 계신 분, 서서 계신 분, 목이 잘린 분, 다리가 잘린 분, 코가 떨어진 분, 이렇게 모두 다양하게 계신 원인은 이 산중에도 병든 나무 또 죽은 나무, 비뚤어진 나무, 올바른 나무 다 서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네들의 살림살이에 속합니다. 그 모든 석불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말입니다. 아까 원효 대사가 한 움큼 집어다가 끼얹었다고 하지 않습디까? 그러니 완성해 놓은 거는 없어요. 완성이라는 건 없어요. 항상 흐르면 또 들어오고 흐르면 또 들어오고 이렇게 쳇바퀴 돌아가듯 돌아가는 것이 진리지, 완성해 놨다 이러고 벌써 그건 끝이다 이런다면 그 끝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모자라도 모자람이 아니고 잘해도 잘함이 아닌 거죠.

옛날에 제가 어느 모퉁이를 돌아가다 지쳐서 쓰러졌는데 엉금엉금 기어가서 물이 조금씩 흐르니까 그 물을 마시는데, 한 모금 마시니까 삼천 모금을 마셨다는 겁니다. 허, 그래서 또 한 모금을 먹으니까 두 모금을 마셨다는 겁니다. 또 한 모금을 먹으니까 세 모금이 아니라 삼세(三世)의 그 모든 물을 다 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가도 없는 것이고 와도 없는 것이고, 마셔도 없는 것이고 마시지 않아도 없는 것이구나. 이 없는 것 가운데에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나와 있구나. 그 모두가 같이 돌아가지만 모습이 다 달라서 천차만별로 각계각층으로 차원이 되고 그렇게 모두 다 다르구나.'

다르면서도 그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법이 돼서 바깥 현상으로 나오게 되고, 현상으로 나오면 그것을 우리가 법이라고 합니다. 그 모두가 이렇게 되는 마당에서 끝을 마치려고 하지 마시고 '꼭 이것을 알아야겠다.' 하는 마음도 한 찰나에 놓고, 그다음에 또 알아야겠다 하더라도 놓고 놓고 하루살이로, 한 찰나로 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지루하지 않고 항상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항상 공부하는 사람들이 "단식, 단식" 그러는데, 단식이라는 게 밥을 굶고 먹을 걸 안 먹어서 단식이 아닙니다. 본래는 단식이라는 그 구절이 왜 나왔느냐? 모든 스님네들이 공부를 할 때에 '너는 단식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이랬습니다, 선지식들께서 말입니다. 그래 단식이라 함은 공양을 먹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고 끊는 것을 단식이라고 간단하게 생각들을 하지요. 그런데 그런 게 단식이 아닙니다.

근본 단식은 바로 우리가 먹어도 먹는 사이 없이 먹는 것이 단식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걸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단식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왔기 때문이지 만약에 발걸음을 걷는 대로 내가 움켜잡고 왔다면 그건 단식이 아니죠. 그리고 항상 먹는 거니까 먹는데 이걸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고 먹습니까? 그냥 먹게 되면 먹는 거죠. 또 똥을 누는 데도 '이걸 눠야 될까, 안 눠야 될까.' 하고 똥을 눕니까? 하하하. 일상생활이 그대로 단식이며 그대로 활공법(活空法)이며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부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본래 가지고 있는 거를, 활용하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관습이나 그 착, 욕심 이런 것에 끼여서 말갛게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볼 수가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발을 떼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모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대로 법이고 그대로 묘법이고 그대로 활공법이다 하는 것을 제대로만 안다면 아마 그대로 넉넉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단식이라는 것이 '닥치는 대로 먹되 먹은 사이가 없다' 할 때 단식입니다. 단식이란 말도 안 하고 지금 우리는 단식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해가 가게 하기 위해서 몸속에 많은 자생중생들이 있는 것이 바로 자기니까, 자기가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혼자 먹는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해 드렸습니다. 혼자 먹는 게 없고, 혼자 보는 것도 없고, 혼자 듣는 것도 없고, 혼자 가고 오는 것도 없고, 혼자 만남도 없고, 혼자 돈 버는 것도 없고, 혼자 망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여러분은 여여하게 걸림 없이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수화풍이 본래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바탕으로 인해서 광력이나 자력, 통신력, 즉 전력, 이 모두가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못났든 잘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본래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기를 잘되는 것도, 비유해서 구정물이라면 새 물로다가 바꿔 놔야 하는 거죠. '구정물이 나오는 거라면 새 물도 나오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대치를 해서 바꿔서 거기 놔라 이겁니다.

구정물이 나오게 입력이 돼 있으면 구정물만 나옵니다. 아주 똑같이 말이에요. 그거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면, 그 뭇 의식들이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라면 바로 대치를 해서 '그것도 한마음 속에서 구정물이 나오는 거니까 그 속에서 새 물이 나오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대치를 해서 거기다 놓는 겁니다. 이게 굴려 놓는 거라고 합니다.

이 주인공을 믿기는 하되 굴려 놓지 못한다면 바로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도 타파를 못합니다. 생활에 지장을 주고 천차만별로 다가오는 것을 어찌 다 타파를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마음으로 하는 거는 돈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물리가 터져야 되고 지혜가 생겨야 되니까, 항상 딱따구리가 나무 쪼듯 쪼아서 뚫고 들어가 앉듯이 해야 하는 거죠. 항상 바깥으로 믿고 이름을 찾는 것 말고, 안으로만 믿고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너만이 낫게 할 수 있다. 너만이 이끌어 갈 수 있다. 너만이 깨치게 할 수 있다. 너만이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다. 너만이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다.' 하고. 매사 것, 일거일동 자기가 움죽거리고 하나하나 걸음 떼어 놓는 것까지도 거기에서, 자기 주인공 뿌리에서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 도리를 배우시면서 체험하고 자꾸자꾸 발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음의 발전이 돼야 지혜도 생기고, 창조력도 생기고, 마음의 발전이 돼야 넓게 시야를 볼 수가 있다. 넓게 들을 수가 있다. 그리고 넓게 들을 수 있으니까 한 걸음 떼어 놓을 수도 있고 한 걸음 벗어날 수도 있다.

☞ A18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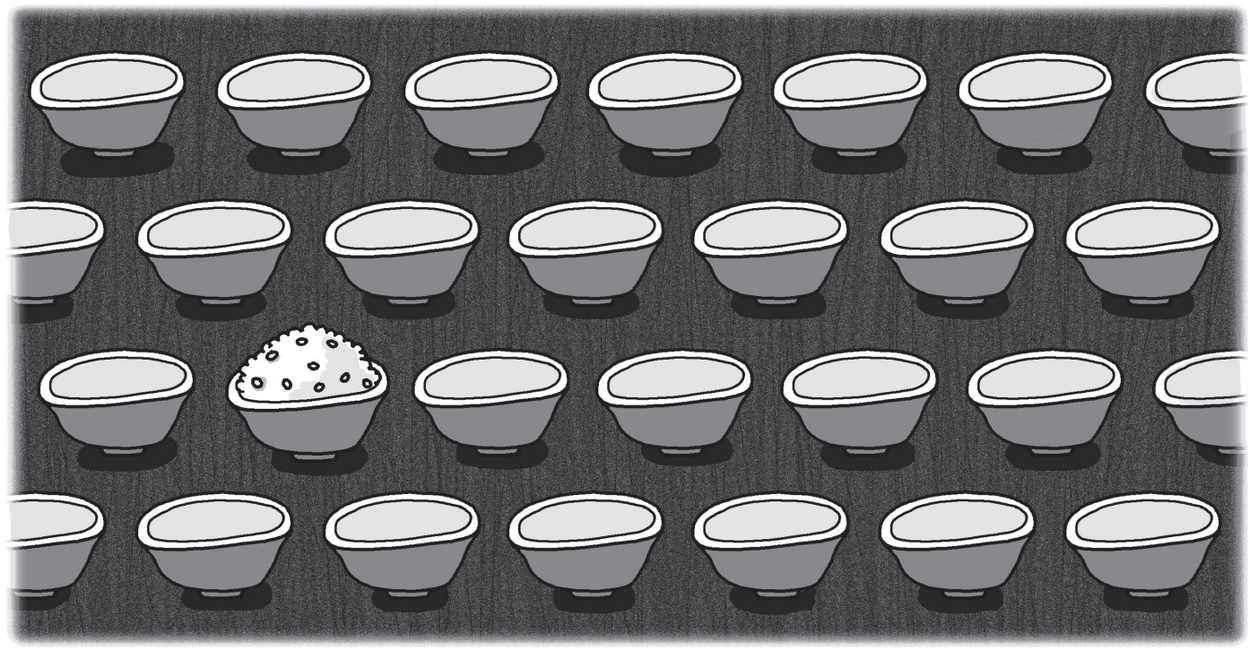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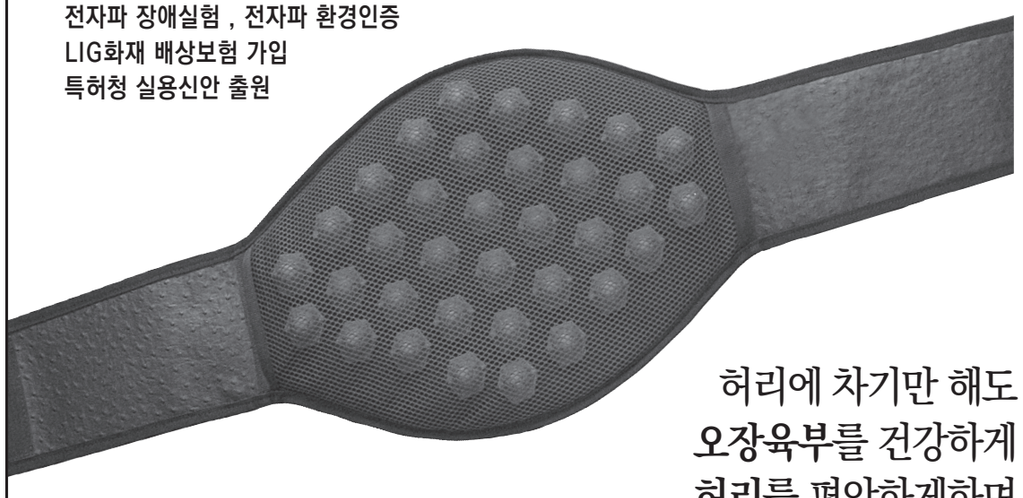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 강 약 돌 온 열 복 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 ,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 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 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 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 다양)